

서울특별시의회 학교·학원가 교통안전대책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윤영희 의원 대표 발의)

의안 번호	2920
----------	------

발 의 년 월 일: 2025년 08월 08일

발 의 자: 윤영희, 김길영, 김동욱,
남창진, 우형찬, 이소라,
이숙자, 이종태, 정준호,
채수지 의원(10명)

1. 주문

- 「지방자치법」 제64조 및 「서울특별시의회 기본조례」 제37조에 따라,
어린이와 청소년의 보행 안전 확보와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서울특별시의회 학교·학원가 교통안전대책 특별위원회」를 구성한다.
- 위원수는 15명 이내로 하며, 활동기간은 위원 선임일로부터 6개월로 하되, 필요시 본회의 의결로 연장할 수 있다.
- 본 특별위원회는 활동기간이 종료되기 전까지 활동결과보고서를 본회의에 제출한다.

2. 제안이유

- 최근 서울시 내 초·중·고등학교 및 학원 밀집 지역을 중심으로 어린이·청소년 보행자 교통사고 및 안전 위협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며, 등·하교 시간대 차량 혼잡, 불법 주정차, 신호 위반 등으로 인한 보행 안전 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다.
- 특히 학교 앞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과 학원가 주변은 제도적 보호 장치와 현장 관리의 실효성이 충분히 확보되지 않은 사례들이 확인되고 있으며, 이에 따른 시민들의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 이에 서울특별시의회는 서울시 전역의 학교 및 학원가 주변 교통안전 실태를 점검하고, 어린이와 청소년의 보행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한 종합적인 개선방안 마련을 위해 「서울특별시의회 학교·학원가 교통안전대책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한다.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제64조, 「서울특별시의회 기본조례」 제37조

4. 이송처

- 서울특별시의회

서울특별시의회 학교·학원가 교통안전대책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 서울특별시 관내 대치동, 목동, 반포동, 중계동, 잠실동, 방이동 등 주요 학원 밀집 지역은 등·하교 시간대에 차량이 집중되어 교통 혼잡이 심화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보행자 안전사고에 대한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 특히 이들 지역은 초·중·고등학교와 학원이 인접한 구조로 형성되어 있어, 학생들의 통학과 학원 이동이 반복적으로 이뤄지는 이중 교통동선의 특성을 지닌다. 이로 인해 학생을 포함한 보행자의 교통안전 문제가 더욱 복잡적이고 심각한 양상으로 나타나고 있다.
- 그러나 해당 지역들은 학생과 학부모의 통행량이 높고 통학 차량의 주정차 수요가 집중되는 특성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린이보호구역과 같은 법적 안전장치가 미흡하거나 적용되지 않는 경우가 많아 학교 주변 역시 교통안전의 사각지대로 지적되고 있다. 이에 따라 서울시민의 민원도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며, 정책적 대응의 필요성이 점차 커지고 있다.
- 또한 공유킥보드, 불법 주정차, 보도 및 이면도로 혼잡 등 다양한 교통요인이 중첩되면서, 학교와 학원가 전반에서 학생들의 통학 안전뿐 아니라 지역 교통 질서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실정이다. 이러한 보행 환경 문제는 단순한 불편을 넘어 시민의 생명과 직결되는 중대한 정책 영역

으로 인식되고 있다.

-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련 제도는 획일적 기준에 따라 운영되고 있어 학교 및 학원가와 같은 특수 지역의 교통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지역마다 교통 밀도와 보행 패턴, 이용자 특성이 상이함에도 이를 유연하게 반영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부재하다는 점에서, 현행 제도의 구조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 이에 서울특별시의회는 서울시 학교 및 학원가의 교통안전 실태를 종합적으로 점검하고, 시민의 안전권 확보를 위한 실효적 정책 개선 방안을 모색하기 위하여 「학교·학원가 교통안전대책 특별위원회」를 구성할 것을 결의한다.

2025. 8.

서울특별시의회 의원 일동